고갱 '타이티의 여인들'

키스 해링 '앤디마우스'

세잔 '생 빅투아르산'

거장들이 몰려온다… 광주 블록버스터 전시 봇물

시립미술관, 키스 해링전·獨 요셉 보이즈전 등 잇따라

내년 지역·유럽작가 20명 프롬나드 프로젝트 열기로

광주에서 고흐·고갱·세잔,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 독일의 국보작가 요셉 보이스, 프랑스 유명 미술 기획자 로랑 헤기의 프롬나드 프로젝트 등 블록버스터 전시가 잇따라 열린다.

또 이들 행사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 무대가 열리는 등 지역 화단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생 테티엔느 미술관의 로랑 헤기(Lorand Hegyi) 관장이 24일 오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을 찾아 프롬나드 (promenade)프로젝트를 광주에서 열기로 했다.

로랑 헤기는 나폴리현대미술관장을 지내는 등 유럽 5개국에서 30여 년 간 미술관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차례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후보에도 오른 유럽의 유명 큐레이터이기도 하다.

프롬나드 프로젝트는 사라예보, 발렌시아 등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도시에서 그 지역 작가와 해외 유명작가들이 펼치는 미술 퍼포먼스다. 도시의 역사와 상징성 등이 예술과 어우러지는 이색 기획이며, 유럽과 지중해 인근 도시에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내년 하반기 지역 작가 10명과 유럽 유명 작가 10명이 광주에서 프롬나드 프로젝트를 열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한 지역 작가 10명은 로랑 헤기가 기획하는 다른 도시의 프롬나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시립미술관은 또 내년 하반기에 예산 2억원을 들여 요셉 보이스(Joseph Beuys·1921~1986년) 전시를 열 계획이다. 이날 오후 독일 슐츠갤러리 마이클 슐츠 관장도 미술관을 찾아 요셉 보이스의 광주 전시를 조율했다.

요셉 보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지난 1962년 독일 비스바덴에서 열린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3대의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마지막에 도끼로 백남준의 피아노를 내려친 사람이 보이스였다.

후기인상파 대표작가들도 광주를 찾는다. 시립미술관은 내년 하반기에 고흐·고갱·세잔의 작품을 묶어 선보이는 '후기인상파'전을 열기 위해 최근 광주시에 예산 3억원을 신청했다.

인상파는 일본과 한국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들 작가들은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더 없는 감상 기회다. 예산이 부족한 반면, 유럽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을 모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오는 12월8일~2011년 2월27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는 광주일보사와 시립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전이 열린다. 키스 해링은 앤디 워홀과 함께 20세기 팝아트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로 거리의 벽면이나 지하철 광고판 등에 낙서를 그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는 60여 점의 대표작과 영상 작품이 소개된다. 그의 예술적 멘토였던 앤디 워홀과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조합한 작품과 국가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꾼 작품, 생명에 대한 경외를 드러낸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찾은 佛 생 테티엔느 미술관 로랑 헤기 관장

"광주작가들 유럽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만들겠다"

"단순히 전시회를 여는 게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작가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24일 프롬나드 프로젝트 협의차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은 프랑스 생테티엔느 미술관 로랑 헤기 관장은 '광주의 역사성'에 주목했다. 프랑스 학계와 예술계에 광주항쟁의 역사가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 중심보다는 역사를 간직한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예술 행사가 의미 있습니다. 그 도시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장소성'이 프롬나드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간직하고 있는 보스니아 사라예보,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프롬나드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가 광주에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추천을 받아 광주 작가들을 유럽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회에 초청하겠습니다. 또 미술관 교류를 통해 생 테티엔느 미술관의 소장품을 광주에서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시인協 정기세미나 광주서 열린다

27~28일, 시낭송회·문화유적 답사 등 프로그램 다채

〈이건청〉

〈강경호〉

한국시의 지평을 논의하는 정기세미나가 오는 27·28일 양일간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의 이번 행사는 1970년 광주에서 열린 후 40여 년 만에 계간 '시와사람'이 유치해 개최하는 것으로 시낭송회, 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28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방자치시대와 현대시'라는 주제로 열릴 세미나에서는 강경호 '시와사람' 주간이 '지방자치시대와 현대시의 양상', 박현수 경북대 교수가 '중앙중심주의의 극복과 지역문학의 가능성', 이형권 충남대 교수가 '중부지역의 문학장과 시의 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허형만 목포대 교수, 신덕룡 광주대 교수, 문학평론가 김수이씨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김남조, 김종길, 범대순, 허영자, 오세영, 정진규, 오탁번, 이근배, 신달자씨 등 원로·중진 시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이향아, 감태준, 국효문, 이은봉, 문인수, 김헌, 이창수, 김혜영 시인 등이 시낭송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첫날 27일에는 가사문화권 답사와 음악, 연극공연이 진행되고, 둘째날에는 시낭송, 조광조적려유허지, 화순 고인돌군과 운주사 답사 등이 준비됐다.

이밖에 젊은 시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축구팀 '글발'과 광주대 문창과 학생들간의 축구경기, 한국시인협회 시화전이 일곡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24-531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악으로 듣는 성가

'한소리합창단' 연주회

28일 문예회관 대극장

국악성가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국악성가'를 널리 알리고 있는 천주교광주대교구 '한소리합창단'(지도신부 조영대)이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한소리합창단'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새로운 국악 미사곡과 다양한 국악 성가를 선보인다.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로 유명한 고(故) 이태석 신부의 곡인 '묵상'을 비롯해, 성탄곡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여자보다 귀한 건 없네' 등을 들려주며 서울 국악관현악단 '하늘소리'와 협연한다.

1993년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강수근 신부의 지도하에 '국악성가배움터 동호회'로 시작돼, 1997년 정식발족한 '한소리합창단'은 국악미사곡 '하나, 둘'을 발간했으며 국악미사곡 CD음반을 발매했다. 문의 011-6633-735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일보육교류협회

27일 연수 보고회

한일보육교류협회(회장 박말신)가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국악당 1층 플레르식당에서 제18회 한일보육교류회 연수 보고회를 갖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0월 광주, 서울, 부산지역 보육교사 9명이 참가했던 일본 오사카 노조미노 몬 보육시설 등 보육연수 활동 보고를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일본 연수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연수회 동영상 상영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000년 창립한 한일보육교류협회는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보육교사 교류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일간 보육교사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062-525-674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과학대 모델공연예술과 '우암극회 연극제'

전남과학대 모델공연예술과(학과장 김유석)가 23·24일 양일간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궁동소극장에서 '제26회 우암극회 연극제'를 개최했다.

이번 연극제에 올린 작품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성장통을 익숙한 멜로디에 담아 노래한 뮤지컬 '판타스틱스'과 암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해야하는 50대 엄마, 엄마를 보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절절함을 세밀하게 그려낸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다.

이번 무대는 김유석 교수의 지도로 지난 1년간 교수와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한편, 이 대학 공연예술과는 톱스타 조인성을 비롯해 김영준, 정소영, 가수 SIC 등 스타를 배출한 명문 학과이다. 문의 061-360-5365.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뮤지컬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사랑방들깨칼국수 신창동 부영1차 106동 앞 비지락칼국수, 들깨칼국수, 팥죽칼국수 등 맛있게 해드립니다 대표 황은이 ☎(062)951-7885

수목부동산 각화동 신흥맨션 밑 땅, 모텔, APT, 자연녹지, 상가 매매전문 ☎(062)523-7773

만연유기 계림오거리 조내과 앞 불교용품 백화점 대표 차만준 ☎(062)226-3339

(유)이천고속관광 임동 무등경기장 정문 건너편 2층 국내·외 여행, 각종행사 최신형 전세버스 대표 이원주 ☎011-609-1797

둥지공인중개사 두암2동 신흥맨션 밑 버스정류장 옆 APT, 주택, 상가, 토지 매매전문 대표 박여욱 ☎010-2727-5566

전우야 전통전 전문점 대의동 전일B/D뒷편 전일주차장 옆 점심 별미특선 매콤비빔국수, 얼큰해물국수 시원잔치국수 대표 이재숙 ☎(062)222-1511

와인&삼겹 시내 구시청에서 남광주시장방면 50m지점 삼겹살에 와인한잔 퓨전 숯불구이 전문점 대표 임형중 ☎(062)232-8292

솔레미오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에서 충장로3가쪽 50m지점 2층 스파게티 전문점 대표 왕일국 ☎(062)234-5325

꾼노리 동구 광산동 60-2(구시청 사거리) 뉴서울 퓨전 소주호프 룸식주점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덕열 ☎(062)236-2636

흙과 사람들 수완중학교 정문 입구 맞은편 황토침대, 인테리어 소품, 자연가구, 그릇 방파유리, 집들이, 차도구, 단체선물 대표 홍영숙 ☎(062)955-0696

삼다돈 광주첨단점 월계동 LC타워와 KT광산지사 사이 골목 제주생고기, 제주양념갈비 제주청정돼지고기구이 전문점 오프기념 소주1병 1,000원 ☎(062)974-2292

청도(청둥오리전문점) 수완에너지 입구 청둥오리 약탕·주물럭·로스구이 매실오리훈제, 추어탕, 오리뚝배기탕 단체예약 환영 ☎(062)953-1309

수완3급자동차공업사 수완동 대주6차APT와 수완에너지 입구 사이 밧데리, 에어콘, 엔진, 하체수리, 커먼레일, 빵구, 오일교환 검사대행, 보험가입상담, 오토미션, 각종경정비 일체 대표 김종수 ☎(062)961-2114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 매매, 무료감정 고급 표구족자 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여행백화점동주여행사 금남로5가 구 동구청 3층 동주항공여행사에서 마음대로 골라 떠나자 와이키키, 리조트 오아후섬, 오전출발 대표 주상용 ☎010-5175-7603

똥강아지 호남동 43-2〈구 태평극장 옆〉 분양, 교배, 미용, 목욕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대표 송철진 ☎(062)233-0755

신포우리만두 충장로3가 28-2 최고의 맛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225-7501

작명대가 동양철학원 신가동 977-9, 소방서건너 2층 작명대가 광주에 떴다!! 좋은 이름은 사주와 상생되어야 길하다. ☎010-6878-5847

(주)정두레 금남로5가 남선빌딩 407호 메탈파이터 영·호남 총판 중앙지사장 임동춘 ☎(062)224-8028

본죽운암고가점 운암동 문화여성병원 맞은편 전통건강죽 영양맛죽의 명가 ☎(062)527-6288

피자지오(서구점) 풍암동 우미A상가 1층 남양유업 치즈 100% 사용 대표 김일득 ☎(062)652-9999

공인중개사 일심사무소 산수동 동구새마을금고 부근 상가, 주택, 원룸, 아파트, 토지 상담환영 대표 김용욱 ☎010-3646-5566

아우성 계림동 구 계림파출소 앞 남성조루 행동요법 보조기구 www.ausung.kr ☎010-2411-0525

형제우리옷·이불 금남로 5가 동부화재 건너편 특수 계량한복, 이불, 수예 전문 대표 모상천 ☎011-9213-2222

오치포연정 오치초교 건너편 골목 50m, 2층 뜻하고 마음먹은대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010-2601-6657